



장애물 넘고 넘어...

25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 35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장애물을 뛰어 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 오진욱 높이뛰기 '금'

전국 종별육상선수권

오진욱(조선대)이 제35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진욱은 25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육상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높이뛰기에서 2m15cm를 기록해 2위 부산동아대의 이재형을 5cm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3위는 충남 공주대의 김종표가 2m05cm를 뛰어 3위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중 우승

장원배 정구 개인복식

금호중이 제11회 장원배전국남녀중·고정구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함인준-임원우(금호중)조는 25일 광주 동신고등학교 정구장에서 열린 남중부 개인복식 결승전에서 이정민-박선호(금호중) 조를 4-2로 제치고 우승했다. 함인준-임원우 조는 준결승에서 충북 내포중의 명선호-김동훈조를 4-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이정민-박선호 조는 동춘중의 김진성-황승표조를 역시 4-2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금호중 선수끼리 결승전을 벌였다. 홍현주-최민하(동신여고)조는 여고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 윤형욱-고영빈(동신고)조는 남고부 개인복식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동성고 대회 2연패 도전

양현중 역투-경기고 꺾고 결승행

대통령배 고교야구

광주 동성고가 제 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진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동성고는 25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경기고와의 4강전에서 선발투수 양현중이 7이닝 동안 삼진 9개, 3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데 힘입어 8-2로 승리했다. 동성고는 지난 대회 우승팀답게 경기 초반부터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고를 억박질했다. 동성고는 2회 선두타자 이상원

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윤도령의 희생번트에 이어 신영재-정훈의 연속안타를 묶어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1사 1,3루 상황에서 임익준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임세준마저 볼넷을 얻어 밀어내기 1점을 추가했고, 노진혁의 좌월 2루타로 2점을 보태 4-0으로 초반 승기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동성고는 4회 안타 2개와 볼넷 2개를 묶어 2점을 추가한 뒤 8회 4번타자 이우진의 투런홈런으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한편 결승전은 26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송원 자매' 나란히 결승 진출

송원정보고, 제천여고 제압

여중, 울산 중앙여중 완파

대통령배 남녀 중·고 배구

송원여중과 송원정보고등학교가 제40회 대통령배 전국남여중·고배구연맹전에서 각각 여중·여고부 결승에 진출했다. 송원여중은 25일 대구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여중 준결승전에서 울산 중앙여중을 세트스코어 2-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26일 강릉여중과 패권을 다투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B조 2위로 결승에 오른 송원여중은 이날 라이트 공격수 나윤주(3년)와 레프트 김세련(3년), 한수성(3년)등의 활약에 힘입어 1세트 25-22, 2세트를 25-21로 누르고 우승했다. 여고부 송원정보고는 총 5개팀이 출전한 풀리그전에서 1차전 부산남성여고, 2차전 대구여고, 3차전 제천여고를 각각 3-0으로 꺾고 현재 3승을 거뒀 26일 리그 4차전인 경남여고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확정 짓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날아가버린 박지성 1호골

공식통계서 자책골로 수정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로 수정됐다. 그동안 박지성이 정규리그에서 2골을 넣었다고 기록해 왔던 프리미어리그 공식 통계 사이트 액티비 스태츠(Activ Stats) 홈페이지(stats.premierleague.com)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박지성의 2005~2006 시즌 득점 수를 1골로 고쳤다. 박지성이 지난 2월5일 풀햄전에서 터트린 정규리그 첫 골을 풀햄 수비수 카를로스 보카네그라의 자책골로 공식 수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영국 스포츠 매체들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판정단 발표를 인용, 박지성의 풀햄전 골이 자책골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액티비 스태츠는 박지성의 득점을 계속 2골로 기록해왔다. 이에 따라 박지성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은 지난 10일 아스널과 홈경기에서 터트린 추가골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찬호 "아쉬운 패전"

호투 불구 팀 타선 침묵



'코리아 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5년 만에 완투 문턱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타선 지원 부족으로 시즌 첫 패전을 떠안았다. 박찬호는 25일(한국시간) 팰트파크에서 벌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슈아내며 안타 9개, 볼넷 1개로 4점을 내준 뒤 1-4로 뒤진 9회초 2사 뒤 강판했다. 샌디에이고는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 박찬호는 시즌 첫 패를 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 시즌 1승1패. 지난 20일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7이닝 4실점(3자책)하며 시즌 첫 승을 올린 박찬호는 그러나 2경기 연속 호투를 펼치며 선발 잔류에 청신호를 켰다. 이날 던진 공 119개 가운데 79개가 스트라이크였고, 시즌 방어율은 4.86에서 4.62로 끌어내렸다.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던 2001년 8월25일 애크랜턴전 완투승 이래 약 5년 만의 완투를 눈앞에 둘 정도로 잘 던졌지만 상대 에이스 브랜든 웹의 벽을 넘지 못한 팀 타선의 침묵이 아쉬운 한판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6일(수)

▲메이저리그<콜로라도 : 필라델피아>(07 : 55·Xsports), <시카고W-시애틀>(10 : 55·Xsports) ▲NBA 플레이오프<새크라멘토-샌안토니오>(10 : 30·MBC ESPN) ▲제40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연맹전 남고부 결승(14 : 00·KBS SKY SPORTS)

▲MBC배 대학농구 준결승(14 : 00·MBC ESPN) ▲프로야구<롯데-두산>(18 : 00·KBS SKY SPORTS), <기아-KIA>(18 : 00·SBS 스포츠), <삼성-LG>(18 : 30·MBC ESPN) 27일(목) ▲메이저리그<피츠버그-세인트루이스>(02 : 00·Xsports)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AC밀란-바르셀로나>(03 : 30·MBC ESPN), (03 : 35·MBC)

Advertisement for '집어진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New concept of repair and ground improvement for collapsed structures and weak ground). It features images of damaged buildings and text describing the '우레텍' (Uretek) technology. Key points include: '우레텍'은 시멘트와 수산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성능 복합수지, '우레텍'은 시멘트와 수산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성능 복합수지, '우레텍'은 시멘트와 수산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성능 복합수지.

Advertisement for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I will help you with your remarriage with confidence). It features a woman in a pink jacket and text promoting a service for remarriage. Key points include: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